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0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03  
2021.05.03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03

### 1. [재앙아, 나도고소해라]

문재인대통령, 이라는표현도우습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부르려면 문재인이라는인물이헌법상자연인이아닌행정기관의하나임을뜻하는것이기때문이다. 행정기관이라는말이조금포괄적인데, 더자세히이야기하자면'법인격을지니지않는'행정청이라는이야기다. 행정주체와행정청은엄연히다른데, 간단명료하게표현하자면행정주체는훼손당할명예등을지니고수틀리면고소고발을할수도있는것, 그리고행정청은그런거없다, 로정리할수있겠다.

아나키스트조직인우리 < 아나키스트연대 > 가굳이왜부르주아사법체계의이론을살펴보았는지에대해서는재론할필요가없을것같다. 자기입으로" 납득못할비난도참겠다" 던문재앙이, " 정부를비난하거나대통령을모욕하는정도는표현의 (자유) 범주로허용해도된다" 던문재앙이, " 대통령을욕해서기분이풀리면그것도좋은일" 이라던문재앙이 자신과' 여권인사를비판하는전단을뿌린혐의' 로 30 대남성을모욕죄로고소했기때문이다. 본인스스로말한것을반복한것은둘째치고, 대통령입네똥내하는행정기관주체에고소를한것은제쳐두고, 차떼고포떼고, 그냥너무찐따같지않은가.

어차피귀막고개쌍마이웨이가시겠다는것같으니, 대중역시당신에게더이상어떤예의도지킬필요가없을것같다. 문재앙은대중의입을틀어막으려는독재자임이분명해졌고, 박정희, 전두환이총과칼로대중을짓이켰다면문재앙은세련된방식으로자기손에피안묻히고법으로가두고, 벌금내게하고, 이어서손해배상소송등으로사람을스스로죽게만들고있다는것을누가부정할수있겠는가. 비단이번고소뿐만이아니라문재앙독재정부들어서빚발쳤던그모든노동운동에대한탄압을생각하면절대로류가있는표현이아닐것이다.

독재자문재앙, 당신의그행정이라는것이속속들이실패작이었음이 드러나고있고, 이미대가리가깨졌는데도당신을물고빠는몇몇광신도외에는당신편이없다. 이제퇴임까지얼마남지않았는데그이후의여생, 결코편안하지낼수있기를희망하지말라. 당신생전, 사후의역사가당신을독재자가아니라고기록할것이라는그모든희망을버리라. 설령잊혀질지라도당신에게입막히고죽어간그모든이들이뜬눈으로살아나서슬퍼렇게지켜볼것이다.

재앙아, 우리는네가독재자임을계속해외칠것이고, 파쇼임을꾸준히 말할것이고, 권력의본질이이런것임을결코입다물지않을것이다. 나도고소해라.

" 대통령비난전단뿌린 30 대검찰송치...문대통령, 대리인통해고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814001&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814001&code=940202)

## 2. [동작그만, 밀장빼기냐?]

최근테슬라사가비트코인투자를대중에게부추긴후정작비트코인이정점을찍자매각하여거액의수익을올린것이논란이되고있다. 정확히는지난 1 월말부터테슬라의 CEO 이자트위터의인기인, 일론머스크는비트코인에대해구세대를대체할화폐인것처럼이야기하면서꾸준히비트코인투자를사람들에게장려했다. 이의말에혹해서투자한사람들중에서는실제로비트코인을‘새로운’자본주의체제의근간으로보고투자를한사람도있을것이고, 이와달리전문주식꾼들이있는주식시장대신아직손쉽게수익을낼수있는가상화폐에술깃해하면서투자를한사람도있을것이다. 어쨌든그렇게많은사람들이투자를하면서가격을올리고되팔면서수익도얻고함에도불구하고, 자본주의체제에서투자를할수있는것이라면늘그렇듯이어느순간정점에다다르고하향세를맞이하게된다. 이때일론머스크본인은자신의비트코인은안팔았다는등의도를부정을하지만결과론적으로테슬라는많은사람들이비트코인에투자를한것을이용해서 1 천억원대차익을창출했다.

앞으로할이야기에대해미리선을긋자면일론머스크의의도가어떻든간에대중에게가상화폐투자를부추긴행위는온갖욕을들어야마땅한것이다. 필자도결과주의는별로안좋아하기에결과론적으로대중이어마무시한피해를봤으니까나빴다느니를말하려는것은아니다. 탈중앙화를내세우면서정작사용자들은실체도명확히알기어려운불투명한가상의‘화폐’가현실에있는기득권의금융을대체할수있는것인마냥떠들면서사람들을속인것자체가크나큰잘못이라는것이다. 애초에현시대의화폐와금융은가치를유지하기위해현실의물질을기반으로하고있고, 이런금융체계가기득권을거스르지않도록국가가국가권력이라는폭력을사용하며유지하고있다. 이런체제속에서의가상화폐는결국그체제를벗어나지못하며그저돈세탁소나‘투자’를빙자한국제적도박장이될뿐이다. 이런점을일론머스크라는 IT 업계의권위자가몰랐을리는없다. 그렇기에아무리종게봐도가상화폐에대해서만큼은그는세간의위기를돈벌이로활용한선동꾼자본가인것이다.

하지만그렇다면그저일론머스크와테슬라사가사기꾼스러운추악한자본가와그가조종하는기업인것일까? 우리모두비트코인을그저멀리하면행복한삶을살수있을것인가? 그렇지않다는건모두다알것이다. 금전적인것에선동된다는것자체가자본주의체제에서물질적인미래가불투명하니까발생하는것이며개개인의정보부족이나‘어리석음’은지극히부차적인것이다. 특히판데믹이후점점미래는커녕당장금전적으로위기를겪는사람들은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물가는계속해서올라가기만한다. 그뿐만이아니라소위민생의핵심이라던기업은이와중에조금이라도더‘성장’하겠다고언제든지노동자들을해고할준비를하고있다. 이러니까어떻게비트코인이이야기에혹하지않겠는가?

그런데 요즘 일부 언론을 보면 아주 그냥 신나서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까기에만 정신이 팔렸다. 정작 더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판데믹을 핑계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만행도 매  
 우중요하지만, 잠깐 그래도의 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올해 초 전사  
 회를 뜨겁게 달궜던 LH 투기 사건과 그 조사 관련 뉴스 보도가 부쩍 줄었다.  
 아니, 정확히는 간혹 있기는 한데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왜 은근 슬쩍 대중의 눈을 네 멋대로 돌리려 하나? 대중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계정 작수 많은 비트코인 비판 뉴스의 댓글들  
 을 보다 보면 항상 LH 를 잊지 말라는 댓글들이 보인다. 그만큼 현대의 대중  
 은 더 이상 하찮은 수작질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나키스트이기  
 에 솔직히 LH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든 청와대가 수사를 하든 의회  
 가 수사를 하든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탄에 의회주의자라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  
 지한다면, 제대로 정부의 행실에 대해 언론 보도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https://news.jtbc.joins.com/html/046/NB12002046.html>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020501514046](https://www.ytn.co.kr/_ln/0101_202105020501514046)

### 3. [또기만...이젠 제목쓰기도 귀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주시겠다고 한다. 심지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까지 한다. 더  
 불어민주당이라는 위대한 정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군  
 의 하해와 같은 은총에 성은이 망극하다고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해야겠다. 이  
 름을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진짜로의미가 있다면 말이다.

노동절은 헤이마켓에서 학살당한 수십명의 노동자들과 투쟁가들의 기  
 리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계 노동자들이 스스로 제정한 노동자들  
 의 날이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새 ‘노동절’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이  
 ‘노동절’을 정부가 공인한 이름으로 설정하고는 정부가 정한 ‘법정 공휴일’  
 로 삼겠다고 한다. 오만도 이만한 오만이 없다. 파업 노동자를 해산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가주의적 노동 정책마저도 기만적으로 실시한 정  
 부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절은 제 2 인터내셔널의 정당 정치인들의 것들도, 전위당의 것도,  
 노동자 국가의 것도 아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  
 자들은 정당도, 국가도 아닌 오직 스스로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뭉친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만이, 진정으로 노동절의 주인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조차도 쓰기 귀찮아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노  
 동절에 경찰, 국가 권력이 노동자 대중을 탄압하고 시위를 ‘감독하고 보호하

는’ 세상이 아닌, 노동자들이 스스로 과거의 투쟁을 기억하며 축제의 장으  
 로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36300001?](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36300001?input=1195m)  
 input=1195m